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3호

2026년 3월 22일(가해)

<p>미사 안내</p>	<p>평일</p>	<p>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p>	<p>주일</p>	<p>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p>
<p>연령회</p>		<p>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p>		



오늘의 미사

사순 제5주일

<p>▶ 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7,12^ㄹ-14</p> <p>▶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p> <p>▶ 2독서 : 로마서 8,8-11</p>	<p>▶ 복음 환호송</p> <p>◎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p> <p>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p> <p>◎</p> <p>▶ 복음 : 요한 11,1-45</p>
--	---

성가 ▶ 입 당: 489 ▶ 봉헌: 347, 512 ▶ 성체: 498 ▶ 파견: 491



사목공지

- ① 4월 5일/19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4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4월 봉성체 안내
4월 봉성체는 4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4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4월 19일~25일)
- ⑤ 4월 2일(목) 오후 7시(주님 만찬) Rice Bowl 2차헌금
- ⑥ 4월 3일(금) 오후 7시(주님 수난) 십자가의 길 (오후 6시) 예루살렘 성전복구 2차헌금
- ⑦ 4월 4일(토) 오후 7시(주님 부활 성야) 세례, 견진 예식
- ⑧ 4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주님 부활 대축일) / 새벽미사 없음
- ⑨ 매월 넷째 주 3월 22일(일) '한끼 나눔'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사목위원회

- 예비자 교리 / 견진 교리: 3/1, 3/8, 3/15, 3/22 (총 4회)

견진교리는 가톨릭에서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고, 성령의 7가지 은사 (성령칠은: 슬기,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통해 신앙을 굳건히 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교회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합하는 영적 성년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 시간: 매주(주일)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구역 및 단체

①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일시: 3월 2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명도회 모임

일시: 3월 22일(일) 오전 9시
장소: 컨퍼런스 룸

③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④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3월 28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⑤ 소공동체 구역장 모임

일시: 3월 2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⑥ 꾸리아 월례회의 모임

일시: 3월 2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사순기간 중 교중미사 시작 1시간 전 (토요일 4시미사 시작 30분전, 새벽미사는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담당 분과 단체 (준비물: 기도서)

3월 22일(일)	사순 제5주일	시설분과
3월 29일(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교육분과
4월 3일(금)	성 금요일 (오후 6시)	선교분과

기타공지

※ 사무실 공지사항

4월 매일미사 책 판매가격 \$14 (큰사이즈 \$18)

※ 유아세례 안내

4월 4일 부활 성야 미사 중에 세례,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주세요.



헌금

5월 16/17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3월 14일 / 3월 15일: \$7,370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281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222	\$1,700	\$1,353	\$1,095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 말씀 전례(6) 말씀 전례 중 복음 환호송

복음이 봉독되기 전에 공동체는 복음 환호송인 “알렐루야(alleluia)”를 노래합니다. 복음 환호송은 히브리말 “hallelu-jah”에서 유래합니다. 이 어원에는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처럼 “복음 환호송은 활력이 넘치는 리듬과 뚜렷하고 확실한 선율로 힘 있게 불러야 한다.(성음악지침)”고 보편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2항에서는 복음 환호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전례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대로 복음 환호송, 곧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환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가 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신자들은 복음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복음 환호송은 모두 일어서서 하고 성가대 또는 선창자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ㄱ) 알렐루야는 사순 시기 시작부터 파스카 성야 전까지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에 노래한다. 이때 따라오는 구절은 [미사 독서]나 미사 성가집에서 가져온다.

ㄴ)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에 [미사 독서]에 제시된 복음 전 노래를 한다. 또는 미사 성가집에 있는 다른 시편이나 연송을 노래할 수 있다. 몇몇 분들께서는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을 헛갈리거나, 같은 예식이라고 받아들이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예식은 서로 다른 목적처럼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답송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응답라면, 복음 환호송은 앞으로 듣게 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와 함께 현존 하심에 대한, 나아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공동체의 환호라는 의미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울러, 신자들이 화답송 때는 앉아서 노래했지만, 복음 환호송은 일어서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에서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또한 개신교를 다니시다가 개종하신 신자분들께서 <알렐루야>가 맞는지, 또는 <할렐루야>가 맞는지 궁금해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사용하지만, 초기 교회 당시 그리스어 발음과 라틴어 발음은 “알렐루야”로 발음하므로, 가톨릭에서도 “알렐루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전례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렐루야, 할렐루야의 논쟁은 단지 발음상에서 오는 차이일 뿐,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 단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이기에, 오히려 이 단어 안에 담긴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이 전례의 정신에 더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드립니다

※ 사순 제5주일 강론 요약

사순 제5주일을 맞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전례의 말씀은 우리가 향하는 길이 단순한 고통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과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실패, 죄와 후회에 묶여 살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며, 부활이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실임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화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종종 과거의 후회와 슬픔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라고 외치시며,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던 것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고, 주저함은 순명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삶은 단순히 신앙의 교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